

# 15억원 낙찰 직후 작품 분쇄한 얼굴 없는 예술가...의구심 증폭

글 김용래(파리)



AP=연합뉴스

경매에서 15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낙찰된 그림이 곧바로 액자 안에 설치된 분쇄기로 잘려나간 현대의 '사건'을 두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작품을 그린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신원에서부터, 이 사건이 과연 경매사 측이 전혀 모른 채 일어난 것인지, 앞으로 이 작품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지 등 뒷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의 현대미술 판매전에는 뱅크시의 회화 작품 '풍선과 소녀'(Girl With Balloon)가 출품됐다.

이 그림의 가격은 당초 20만~30만 파운드(2억7천만~4억4천만원)로 추정됐는데, 수수료를 포함해 104만2천 파운드(15억4천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진행자가 낙찰을 알리는 의미의 봉을 몇 차례 내리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경고음 비슷한 게 울리더니 뱅크시의 그림이 액자 밑을 통과하면서 가늘고 긴 조각들로 쪼개졌다. 참석자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재빨리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경매사 직원들은 반쯤 분쇄된 뱅크시의 작품을 벽에서 떼어내 어디론가 가져가 버렸다.

가방에서 리모컨을 꺼낸 한 남자가 곧바로 경비원

들에 의해 끌려나갔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이 남자의 신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소더비의 수석 디렉터 앨리스 브란크치는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뱅크시' 당했다(We've been Banksy-ed). 솔직히 말해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뱅크시는 사건 하루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액자에 분쇄기를 설치하는 모습과 낙찰 직후 그림이 잘려나가는 영상을 올려 사건이 본인의 소행임을 인정했다.

그는 영상 아래에 "파괴의 욕구는 창조의 욕구이기도 하다.-피카소"라고 적었고, 이 영상은 15시간 만에 조회 수가 500만 회 가까이 나왔다.



AP=연합뉴스

액자 아래쪽에 내장된 파쇄 장치를 통과한 그림이 걸거리 찢긴 채 흘러내리고 있다.

이후 뱅크시는 새로 올린 영상에서 후드 티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여러 차례 예행연습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당초 '풍선과 소녀' 그림 전체를 파쇄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뱅크시의 전력과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린 글에 비춰 현대미술 시장의 거래 관행을 조롱하고, 예술의 파괴와 자율의 속성을 보여 주려는 치밀한 기획으로 보인다.

영국 출신으로 알려진 뱅크시는 전 세계 도시의 거리와 벽 등에 그래피티(낙서처럼 그리는 거리 예술)를 남기는가 하면, 유명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걸어두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로 유명하다.

특히 난민과 사회적 약자,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세력과 자본가 계급을 향한 날카로운 사회비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를 예술로 구현하는 기습적인 작품 활동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지난 6월에는 1968년 학생운동(68혁명) 50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 시내의 건물 담벼락에

그래피티 작품 다수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뱅크시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 번 커지고 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 뱅크시가 워낙 철저하게 정체를 감추기 때문이다.

뱅크시의 홍보대행사 JBPR 측은 신원은 물론, 뱅크시 본인이 이번 경매에서 직접 분쇄기를 원격작동했는지 등 언론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철저히 비밀에 가려진 뱅크시의 신원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2008년 영국의 일간 메일은 브리스톨 출신의 거리예술가 로빈 거닝엄이 뱅크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뱅크시 본인과 거닝엄의 가족들은 이런 추측을 부인했다.

최근에는 브리스톨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일렉트로닉밴드 '매시브 어택'의 멤버 로버트 델 나자가 뱅크시라는 얘기가 많지만, 이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뱅크시가 사실은 여러 명의 그래피

티 예술가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이라는 추정도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소더비 경매 측의 협조 없이 뱅크시가 혼자 벌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소더비처럼 권위적인 미술 경매사는 보통 출품작을 전문가들이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는데, 그림 규격에 비해 지나치게 큰 액자에 대해 주관사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소더비 측은 또 경매에 나온 제품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진행자의 연단 쪽에 두지 않고 이례적으로 벽에 걸어두었는데, 이는 분쇄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매 낙찰 직후 잘려나간 이 작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일단 경매에서 작품을 낙찰받은 여성 고객은 낙찰 가격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교적 깨끗하게 파쇄된 작품을 전문가들이 어렵지 않게 원상태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다는 점, 현대미술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 뱅크시의 작품이라는 점, 사상 초유의 예술사적 이벤트에 쓰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작품 가치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도 있다.

# 렘브란트 걸작 '야경' 내년 7월 복원

글 김경수(브뤼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이 렘브란트의 명작 '야경'(The Night Watch)에 대한 복원작업을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미술관 측은 복원작업 과정을 일반 관람객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 미술관에는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복원작업에는 수백만 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며 언제 복원작업을 마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미술관 측은 전했다. 이번 복원작업은 이 미술관 역사상 최대 작업이라고 NU.nl을 비롯한 네덜란드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타코 디비츠 관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렘브란트의 작품 '야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원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야경을 보기 위해 미술관을 방문한다"면서 "야경은 모두가 사랑하는 작품으로, 전 세계는 우리가 이 작품을 다루는 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인 렘브란트가 지난 1642년에 그린 이 작품은 지난 1976년에 한 남성이 칼로 작품을 그어서 일부 훼손되는 바람에 복원작업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전문가들은 칼로 손상된 부분을 비롯해 작품의 일부에서 희부연 것이 생기는 것을 발견해 이번에 복원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복원작업은 먼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이 작품을 철저히 조사·분석한 뒤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복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고 미술관 측은 전했다.



# 사라지는 스위스 빙하 10년간 20% 녹아

글 이광철(제네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스위스 빙하 규모가 1년 전보다 2.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빙하 규모는 20% 감소했다.

스위스 과학학회는 연간보고서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를 '극한의 한 해'라고 표현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알프스 산악 지대에는 4년 만에 많은 눈이 쏟아졌지만, 올여름 폭염 때문에 빙하 표면이 녹는 것을 막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해발고도 2천m 이상 산간 지대에는 3월 말까지 예년보다 배기량 많은 눈이 있었지만 3월 이후 기온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쌓여 있던 눈은 빙하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녹았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기상 당국에 따르면 기상 관측 이후 올해 6~8월 평균 기온은 2003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기간을 확대해 4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하면 기상 관측 이후 올해가 가장 더웠다.



강설·눈사태 관측소가 있는 바이스플루요흐 정상(해발고도 2천540m)은 올해 5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덮여 있는 눈의 두께가 채 1cm도 되지 않았다. 이 봉우리의 적설량이 1cm 아래로 내려간 것은 81년 만에 처음이다.

스위스 빙하 관측 네트워크의 마티우스 후스는 AFP통신에 "지구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더워진다면 스위스에서는 많은 작은 규모의 빙하들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 과학계에서는 금세기 안에 빙하가 모두 사라지고 고산 지대에 바위만 남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PA=연합뉴스

## 여성 자동차경주 'W 시리즈' 내년 시동

글 박대한(런던)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원(F1) 그랑프리  
에 대해 여성들만 출전하는 자동차 경주대회  
가 내년부터 열린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내년 5월 여성 자동차 경주대회인 'W 시리즈'의  
첫 대회가 유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W 시리즈'는 F1의 하위대회인 F3에서 이용하  
는 타투스의 T-317 차량을 몰고 경쟁하는데,  
오로지 여성만 출전할 수 있다.

총상금은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원), 우승  
상금은 50만 달러(약 5억7천만원)로 책정됐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모터스포츠 업  
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  
하고 있다.

특히 섭씨 50도의 실내에서 시속 300km를 넘나

드는 경주를 펼쳐야 하는 F1은 아직 여성들의  
성과가 미미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F1 결선에 진출한 여성은 1976년 렐  
라 롬바르디(이탈리아)가 유일하다.

미국 인디카 시리즈에서 여성 드라이버인 대니카  
패트릭이 활약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W 시리즈'의 대표인 캐서린 본드 뮤어는 "통상  
스포츠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경쟁하  
며, 남녀가 다른 경기로 구분돼 있다"면서 "이  
경쟁이 가능한 여성 재능의 풀(pool)을 확대하  
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뮤어 대표와 함께 'W 시리즈'를 이끄는 인물은  
영국 출신 기업가인 손 위즈워스 회장이다.

여성들만 출전하는 레이싱 대회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단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F1에 비해 상금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F1 드라이버를 육성하는 데는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과연 여성 드라이버 육성에 선뜻 나  
설 팀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뮤어 대표는 "'W 시리즈'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여성들이 레이싱 스포츠에 유입하도  
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하늘 나는 '에어 택시' 내년 시험 운항

글 김상훈(방콕)

1962년 미국 ABC 방송이 방영한 미래의 삶을  
그린 애니메이션 '젯슨 가족'에는 100년 뒤인  
2062년에 도심 상공을 날아다니는 택시가 등  
장한다.

동남아시아의 도시 국가 싱가포르에서는 '젯슨  
가족'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현지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내년  
중순께 사람을 태우고 도심 상공을 날아다니는  
'에어 택시'의 시험 운항이 싱가포르 도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에어 택시의 도심 시험 운항에는 독일 스타트업  
볼로콥터가 개발한 전기 충전식 수직 이착륙 비  
행체(eVTOL)가 이용된다.

eVTOL은 헬리콥터처럼 생겼지만 드론 기술에  
기반을 둔 비행체로 성인 2명을 태우고 최장 30  
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조종사가 직접 조종할  
수도 있고 조종사 없이 자동 운항도 가능하다.

싱가포르 교통부, 경제개발청(EDB), 민간항공  
청(CAAS)의 후원으로 진행될 시험 운항에는  
최대 160kg까지 승객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기종이 투입된다.

볼로콥터 측은 "에어 택시 시험 운항은 대중이  
참여하는 시연 비행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CA  
AS와 함께 시험 운항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콥터 측은 "에어 택시의 상업 운행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3~5년 안에 첫 에  
어 택시 상업 운행을 기대하고 있다"며 "독일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도시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호 쉐 상 CAAS 항공산업 담당 국장은 "에어 택  
시는 도심지의 이동과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며 "볼로콥터는 항공산업 분  
야 혁신 기술의 최전선"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볼로콥터는 앞서 지난해 9월 두바이에서  
에어 택시의 첫 도심 시운전을 한 바 있다. ①



사진/볼로콥터 제공